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 총평

■ 공연예술창작지원 분야

2023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분야 공모에는 총 20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1단계에 19개 단체, 2단계에 1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안산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가와 단체의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창작단계와 2단계 제작단계로 나뉘는 단계별 지원 사업이다.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면접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심의는 행정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17개 단체(1단계 16단체, 2단계 1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장르별로는 세미뮤지컬 포함 뮤지컬이 5편, 연극이 5편, 음악이 5편, 그리고 무용 1편, 복합 1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3인의 심의위원은 단체의 역량과 실행력, 그리고 기대성과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17개 단체의 지원서를 심사하였다.

그 결과 5개 단체(1단계 4단체, 2단계 1단체)가 면접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체로 성실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나, 1차 서류 심의에 통과한 단체들은 더욱 탄탄한 사전 준비과정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대본이나 악보를 제출하거나, 참여 인력 대부분이 섭외 완료된 단체가 2차 면접 심사에 참석하였다.

면접 심의는 10분 발표 후 5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제작에 관련된 질의를 주로 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창작 지원에는 3편을 선정하였다.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청악)으로 장르적 안배가 구현되었다.

2단계 제작 지원은 지난해 1차 쇼케이스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차 쇼케이스와 당시 일정한 성과를 보였기에, 지속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단체가 책정한 예산이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 제출한 예산을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이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3단체에도 공이 적용하였다.

심의를 진행하며 교육 중심 단체와 배리어프리 전문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년과 비교해 뮤지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으며,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해온 단체가 늘어났음을 체감하였다. 다음 연도에 본 사업을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이 같은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공모 이전부터 사전 준비 단계를 착실히 밟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할 것이다.

2023. 03. 17.

심사위원 김일송, 신동호, 송현민